

새해 달라지는 것들

월 소득 450만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받는다

건설·부동산·교통

▲단독가구주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 3월부터 단독가구주라도 월세 이하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 저소득층은 전용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 하반기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 때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배점제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이 상향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8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많아진다. 법규 위반 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한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 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도 교통 과태료 납부 = 1월 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 수수료료를 물어야 한다.



농식품·산림

▲경영이양 농지 양수 대상자 확대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가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업성대상자 등'에서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지연금 시행 =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 실시 = 내년 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 오리 고기를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도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개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진 초미속을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장루·요루 환자의 재료대를 양묘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내년중 모두 8개 항목이 건보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와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천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 높아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 내년 4월11일부터 각급 학교와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가운데 영유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교육활동과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월 53만원(부부 84만8천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그간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왔던 양육수당은 내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내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450만원인 가구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

▲석면피해 구제제도 =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원발성 악성종괴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납, 비소, 망간 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1,4-다이옥산'을 기준 항목에 추가한다.

▲해안·섬지역 공민지구에 숙박시설 허용 =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19세이상 여성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4월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전자소송 확대 = 5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민사에도 전자소송제가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종이 서류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성충동 약제 약물치료 =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24일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다.

행정

시급 최저 4320원·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운전면허시험, 학과·도로주행으로만 간소화

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민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 허용된다. 규모는 해안지역은 50실 이상(부지면적 1만㎡ 이상), 섬지역은 30실 이상(부지면적 6천㎡ 이상), 건폐율 20%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했다.

고용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 주 40시간제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법무·사법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법률조력인을 선임한다.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준다. 법률조력인은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아동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 사법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승세납자 언론 공개 = 고액 상승 세납자 명단공개 방식에 언론매체 게재가 추가되고 공개대상 세액액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 3월부터 납세자가 재산세, 자동차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주택거래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 = 7월부터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고시가 시행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가능시험 폐지 = 현재 학과시험, 가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정치·통일외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전인 내년 10월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도 내년 11월13일부터 시작된다.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한 현역 복무 =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전시 남북피해자 신고 접수 = '6·25전쟁남북피해자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1월3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하고 향후 3년간 16개 시·도 실무위원회와 228개 시·군·구, 재외공관 등을 통해 6·25전쟁기간 남북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광주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돌짜아이 낳으면 10만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내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출산전료비·축하금 지원 확대 =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에게 출산전료비를 현행 30만원에서 내년엔 40만원으로 늘린다. 현재 셋째 예 이상 출산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한다.

▲영유아 병역비 지원 =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의 24개월 이하 둘째 이상 아이에 대해 본인부담 전료비 50%를 지원한다.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시행 =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소득수준을 감안해 월 10만~25만원 지원한다.

▲시립장사시설 봉안당 다른 지역 이용 가능 = 전남(사용료 60만원)과 광주·전남 이외 지역(사용료 90만원)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등산주변 순환버스 운영 = 원효사~침실사~안양산 휴양림~이서초교~담양 냇면~원효사를 순환하는 버스가 토요일 운영된다.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변경 = 택시와 시내버스 운전자의 동일회사 근무조항을 삭제하고 택시운전사의 경우 1순위 조건이 10년 이상 무사고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강화된다.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 = 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한다.

전남도

읍·면·초·중교 무상급식
무안군 삼향면 '읍' 승격

▲경제부지사 신설 등 일부 조직개편 = 정부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에너지분야를 전담하는 녹색성장정책실이 신설된다.

▲무안군 삼향면, 읍으로 승격 =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삼향면이 인구증가에 따라 삼향읍으로 승격한다.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처음으로 도내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 도내에 한 곳도 없는 공립 기숙형 대안교육 과정이 설립돼 중·고등학교 1곳이 세워진다.

▲친환경 유기농 비종자 우선 보급 = 내년에 농가에 보급되는 비종자를 친환경 유기농 재배에 적합한 고품질 안전 품종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조례 시행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우선으로 받아야 할 농가가 지정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분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표시 등도 함께 이뤄진다.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 돼지 열병 청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양돈장에 고유번호를 표시해 양돈장과 이곳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새해 달라지는 세계>는 광주일보 12월 20일자 9면 참조.

年 3회이내 신용조회는 신용등급 영향 없어
주차장·학교내 음주·뺑소니운전도 처벌 대상

금융·우편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확대시행 =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행위인 '썩기'로 간주된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사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차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주기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 요금 할인 = 외국인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은 모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요금을 10~15%까지 할인받는다.

▲친서민 금융 지원 = 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스마트폰 우편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우편번호 검색, 우편물 종적조회, 우체국 특산물 소개, 우편핸드북, 메일서비스는 물론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급(EMS) 신청, 경조카드 신청,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

▲새로운 010 번호제도 시행 =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 상반기부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요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전국 82개시로 확대 =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2011년 4월부터 전국 82개 시로 확대된다. 또한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안 고속도로에도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출범 예정 =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내년 1~2월 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내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상차 치료기, 호흡근관중후군을 가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내년 1~2월 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내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상차 치료기, 호흡근관중후군을 가

교육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유치원,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교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신설 =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 이상인 대학생 1만8천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성적에 A+ 이상인 1천명에게는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 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 4세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까지 정부지원다가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면 확대된다.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10년 지원금액에서 3%를 인상한다.

▲특성화고 전액 장학금 지원 = 1학기부터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